

어떻게 설명 개념은 근거(ground) 개념에 내용을 부여하는가?

이재호*

주제분류 형이상학, 과학철학

주요어 설명, 근거, 인과, 설명적 실재론

요약문

최근 분석 형이상학에서 많은 철학적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 “근거 부여(grounding)”이다. 이 새로운 개념을 옹호하는 많은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적 설명” 개념을 통해 이 개념에 내용을 부여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노력에 대한 N. 톰슨의 비판을 검토한다. 필자는 톰슨의 비판이 설명적 관계가 갖는 화용론적 요소의 위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설명 이론의 구조에 대한 필자의 이론에 따르면,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의 화용론적 성격은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의 성립의 필요조건으로서의 근거 부여 관계의 객관성과 완벽하게 양립 가능하다.

* 중앙대학교

예로부터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은 세계에 다양한 패턴과 의존 구조가 존재한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이 의존 구조와 패턴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에 대해서 철학자들 사이에 의견은 일치하지 않았다. 분석 철학계 안에서 형이상학적 논의가 다시 부활한 20세기 후반, 철학자들 사이의 주도적인 견해는 (근본적인 수준에서의) 패턴이 원초적인 것이며 이 패턴이 자체로 의존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경향은 D. 흄의 정신과 이어져 있다. 흄은 세계에서 관찰되는 통시적 패턴, 즉 항상적 결합(constant conjunction)이 필연적 연결과 같은 그 현상적 패턴 배후의 어떤 관찰 불가능한 인과적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에 도전했으며,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항상적 결합은 그 **자체로** 인과 관계라고 생각했다. 흔히 “인과에 대한 규칙성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아이디어는 다양한 방식으로 옷을 바꿔 입어가며 20세기 후반부를 지배했다.¹⁾ 이렇게 패턴을 통해서 구조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통시적인 인과적 구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20세기 후반부에 세계의 비인과적 의존 구조를 이해하려는 주요 시도들은 종종 수반 개념에 호소했다. 수반 개념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모든 수반 개념의 기저에 있는 핵심 아이디어는 D. 루이스가 지적하듯이 “독립적인 변화 가능성의 부정”(Lewis, 1983, 358쪽)이다. 이 아이디어는, 대표적으로 김재권에 의해서, 가능 세계에 대한 양화를 포함하는 공시적 패턴을 통해서 포착되었다. 예를 들어, 김재권에게 있어, 고통이라는 정신적 속성이 C-섬유 활성화라는 물리적 속성에 강하게 수반한다는 것은 대

1) 예를 들어, 20세기 후반부 가장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던 D. 루이스의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은 비록 그것이 고전적인 규칙성 이론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넓은 의미의 규칙성 이론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이론에서 인과 관계는 법칙적 관계에 크게 의존하는데 루이스는 법칙을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규칙성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략적으로 모든 가능세계에서 C-섭유 활성화가 발생할 경우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C-섭유 활성화와 관련해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고통과 관련해서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며 고통은 C-섭유 활성화에 독립적으로 변화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포착된 수반 관계에서 C-섭유 활성화와 고통 사이에 어떤 관찰 불가능한 내적 연결이 존재하며 그 연결이 이런 패턴을 만들어 낸다는 아이디어는 빠져 있다. 인과에 대한 규칙성 이론에서 인과가 자체로 패턴이듯이 수반 관계는 자체로는 패턴에 불과하다.

패턴이 의존 구조를 형성한다는 생각에 대한 도전은 이미 20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 이 도전은 주로 자연 법칙과 인과에 관한 논의, 즉 통시적 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경향을 주도한 사람은 D. 암스트롱이었으며 그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있어서 규칙성 이론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규칙성은 사례를 설명하는 힘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Armstrong, 1983, 40쪽; Bird, 2007, 86-90쪽) 마찬가지로 비판이 공시적 구조를 패턴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제기되었다. 김재권은 자신이 과거 형이상학적 의존성 개념을 포착하기 위해서 정식화했던 수반 개념이 진정한 설명적 의존 관계를 포착하는데 실패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반은 형이상학적으로 깊은 설명적 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성 공변의 패턴에 관한 현상적 관계일 뿐이다. (Jaegwon Kim, 1998, 10쪽)

패턴을 통해 의존 관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감이 증대되면서 21세기에는 본격적으로 현상적 패턴 배후에 있는 관찰 불가능한 어떤 형이상학적 관계를 통해 세계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유행하게 된다. 통시적 관계에서의 의존성, 즉 인과적 의존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원초적인 힘을 통해서 이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유행하게 되었다. (Bird, 2007; Corry, 2019; Williams, 2019) 공시적 의존 구조에 대한 논의에서도 유사한 시도, 즉 수반이 기술하는 패턴이 자체로 의존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패턴이 의존 구조를 형성하는 어떤 관찰 불가능한 형이상학적 관계의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들이 유행하게 된다.²⁾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날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관계가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근거 부여(grounding) 관계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오늘날 많은 철학적 주목을 받고 있는 근거 부여 관계는 설명적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의존 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패턴이 설명적 힘을 갖지 못한다면 패턴을 통해서 의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최소한 부분적으로)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근거 부여 관계를 옹호하는 오늘날의 철학자들은 흔히 자신들이 상정하는 근거 부여 관계를 현상들의 패턴으로는 포착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설명 개념을 통해서 성격 규정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K. 파인은 다음과 같이 근거 부여 관계를 설명한다. “근거의 관계는 어떤 형식의 설명이다. 주어진 명제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면서 우리는 가장 형이상학적으로 만족스런 방식으로 그것이 참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Fine, 2001, 22쪽) 근거 부여 관계를 설명적 관계로 성격 규정하는 것은, N. 톰슨이 지적하듯이(Thompson, 2016, 395 쪽), 많은 철학자들이 근거 부여 관계를 형이상학적으로 원초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근거 부여 관계를 원초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은, 그것이 현상적 패턴 배후에 존재해 그 패턴을 만들어 내는 어떤 관찰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주어질 경우, 이 관계를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파악할 수도 없고 개념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 영미 철학에서의 설명과 의존 관계에 대한 이런 생각의 변화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볼 것. (이재호, 2020)

그것이 수행하는 설명적 역할을 통해서 근거 부여 관계를 적절하게 성격 규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모두가 우호적인 것은 아니며 톰슨은 최근 논문에서 이 생각에 대해서 흥미로운 반론을 제기한다. 그의 반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설명적 관계라는 것은 그것이 갖는 화용론적 특성 때문에 객관적인 관계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설명적 관계를 통해서 근거 부여 관계를 성격 규정하려고 한다면 근거 부여 관계는 더 이상 객관적인 관계로 생각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설명적 관계를 통해서 근거 부여 관계를 성격 규정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근거 부여 관계가 세계의 객관적인 구조를 드러낸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런 톰슨의 논증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필자의 반론의 핵심은 톰슨이 설명적 관계가 갖는 화용론적 성격이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필자의 비판은 기본적으로 필자가 다른 곳에서 주장한 바 있는 설명 이론의 구조에 대한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논문은 필자의 설명 이론의 구조에 대한 이론이 매우 유용한 이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추가적인 목적도 갖는다.

이 논문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우선, 1절에서 필자는 톰슨의 논증을 요약, 재구성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톰슨의 논증의 특징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고, 그의 논증이 어떤 주장에 근본적으로 근거하고 있는지 분명해질 것이다. 2절에서 필자는 필자가 다른 곳에서 제시한 바 있는 설명 이론의 구조에 대한 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설명적 실재론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3절에서 필자는 톰슨의 논증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K. 베넷의 만들기(building) 관계에 대한 이론을 원용해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는 필자가 베넷의 이론이 옳은 이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필자에게 있어 베넷의 이론

은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근거에 내용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주는 일종의 레시피에 불과하다. 필자는 베넷의 이론이 이런 레시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필자는 베넷의 만들기 관계에 대한 이론이 자체로는 톰슨의 논증에 대한 반론으로 작동할 수 없지만 그것이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적절하게 변형될 경우 설명이 근거에 실질적 내용을 부여하는 실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마지막 절에서 필자는 필자가 제안하는 해결책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며 사실 정초를 옹호하는 철학자들의 주장에 이미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식화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1. 톰슨의 논증

톰슨의 논증은 설명과 근거 부여에 관한 다음의 세 논제 사이에 긴장이 발생한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Thompson, 2016, 396쪽)

- (1) 근거 부여와 형이상학적 설명 사이에 밀접한 연결이 존재한다.
- (2) 형이상학적 설명은 행위자 상대적 특징을 갖는다.
- (3) 근거 부여는 객관적이며 마음 독립적이다.

이제, 논증을 위해서 (3)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1)을 부정하거나 (2)를 부정해야 한다고 톰슨은 주장한다. 그런데 (2)를 부정할 경우 다음의 딜레마 논증에 직면하게 된다.

- (L1) 형이상학적 설명이 일종의 일상적 설명이라면, 일상적인 설명의 화용론적 성격이 형이상학적 설명으로 바로 이전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형이상학적 설명은 화용론적 성격을 갖게 되며 따라서 (2)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L2) 형이상학적 설명이 일상적인 설명과는 구분되는 특수한 설명이

라면 설명 개념을 통해서 근거 부여에 내용을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명 개념은 (성공적인) 일상적 설명 개념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는 특수한 개념으로서의 형이상학적 설명은 마찬가지로 명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는 근거 부여에 내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3)을 받아들이면서 (2)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3)을 받아들이면서 (1)을 부정할 경우 설명 개념을 통해서 근거 부여에 내용을 주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밀접한 연결이 없는 개념을 통해서 성격 규정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톰슨에 따르면, 우리는 설명 개념을 통해서 객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근거 부여 개념에 내용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톰슨은 이로부터 우리는 근거 부여가 객관적인 관계라는 생각, 즉 (3)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³⁾

톰슨의 논증에 대한 이상의 요약은 다소간 과도하게 단순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톰슨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선명하게 드러내 준다. 그리고 이렇게 요약된 논증은 앞으로 이것이 갖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톰슨의 관점에서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톰슨에 대해 충분히 공정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필자는 기대한다.

톰슨의 논증이 갖는 첫 번째 문제는 이 논증의 출발점이 되는 주장, 즉 (1)-(3)이 긴장 관계에 있다는 것이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인과적 설명과의 유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⁴⁾ 톰슨의 (1)-(3)에 대응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제들을 만들 수 있다.

3) 톰슨은 “이 딜레마의 뿔 가운데 어떤 것도 무디게 만들 방법을 찾아낼 수 없었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애초에 우리가 출발했던 근거 부여가 마음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거부하는 것이다”(Thompson, 2016, 401쪽)라고 주장한다.

4) 이 유비가 어떤 원리에서 작동하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절에서 설명될 것이다. 여기서는 일단 유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할 것이다.

- (4) 인과와 인과적 설명 사이에 밀접한 연결이 존재한다.
- (5) 인과적 설명은 행위자 상대적 특징을 갖는다.
- (6) 인과는 객관적이며 마음 독립적이다.

우리는 (4)-(6)을 모두 만족시키는 인과적 설명에 관한 이론을 어렵지 않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D. 루이스의 설명 이론을 생각해 보자. 루이스에 따르면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의 인과적 역사에 대해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Lewis, 1986, 217쪽)이다. 그리고 루이스는 자신의 이론이 자신의 인과 이론, 즉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의존성 분석에 독립적이라고 주장한다.⁵⁾ 이는 인과 관계를 객관적인 것으로 보는 인과 이론과 루이스의 인과적 설명에 관한 이론을 결합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루이스는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⁶⁾ 이렇게 인과를 객관적인 것으로 보는 이론과 결합된 루이스의 설명 이론을 전제해 보자. 이 이론에 따르면 (4)는, 루이스의 이론이 인과적 설명 이론이므로, 자동적으로 충족되며 (6)은 가정에 의해서 충족된다. 따라서 만약 (4)-(6)에 진정한 긴장이 있다면 루이스는 (5)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루이스는 (5)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그는 “제공된 설명적 정보는, 자체로 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진부한 뉴스일 수도 있다. 그것은 수혜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정보에 별로 또는 전혀 더해주는 것이 없을 수 있으며”(Lewis, 1986, 227쪽) 이런 경우 설명은 만족스러울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성공적인) 설명적 관계에는 항상 화용론적 고려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역사에 관심이 많은 철수가 왜 이성계

5)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이 사실을 분명히 한다. “이 논문은 인과 분석에 대한 나의 견해에 의존할 것으로 의도되지 않았다. 인과라는 것이 무엇이건간에 인과적 역사는 존재할 것이며 내가 인과적 설명에 대해서 말할 것은 여전히 적용될 것이다.” (Lewis, 1986, 216-217쪽)

6) 이는 루이스의 인과 분석이 반사실적 의존성에 호소하고, 반사실적 의존성에 화용론적 고려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중요하다.

가 결국 왕이 되었는지 물었을 때, 그가 쿠데타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좋은 설명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철수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성계가 쿠데타에 성공했다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이성계의 쿠데타가 성공한 원인이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에서 설명이 화용론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체로 인과가 객관적이지 않은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계의 왕위 등극으로 이어지는 인과 연쇄가 아무리 객관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위의 철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루이스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인과적 설명에서 (4)-(6) 사이에 긴장이 있다고 볼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인과적 설명의 화용론적 특성을 인정하는 것과 인과의 객관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완벽하게 양립 가능하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형이상학적 설명의 화용론적 특성을 인정하는 것과 근거 부여의 객관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1)-(3)에 긴장이 있다고 볼 이유가 없다.

두 번째로, (3)을 인정할 경우 (1)을 부정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2)를 부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톰슨의 주장도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다. 위의 요약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이 톰슨의 주장에는 형이상학적 설명이 근거 부여에 내용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숨은 전제가 있다. 그런데 이 숨은 전제는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F. 코레이아처럼 근거 부여가 본질 개념을 통해서 분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형이상학적 설명이 근거에 내용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얼마든지 거부 가능한 전제이다. (Correia, 2013) 이런 사람들은 개념 분석을 통해서 근거 부여에 내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설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얼마일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톰슨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필자는

톰슨이 매우 혼란된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동시에 필자는 그것이 톰슨의 논증이 애초부터 고려의 가치가 없는 논증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톰슨의 원래의 취지를 고려해 그의 논증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우선, 우리는 우리(톰슨)의 적이 근거 부여가 원초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서 다음을 전제한다.

- (7) 형이상학적 설명 개념은 근거 부여 개념에 내용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정말로 긴장 관계에 있는 다음의 세 논제를 고려한다.

- (8) 형이상학적 설명과 근거 부여 사이에는 형이상학적 설명이 화용론적 특징을 갖는다면 근거 부여도 화용론적 특징을 갖게 만드는 종류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 (9) 형이상학적 설명은 행위자 상대적 특징을 가지며 따라서 화용론적 특징을 갖는다.
- (10) 근거 부여는 객관적이다.

전건 긍정법에 의해서 (8)과 (9)에서 근거 부여는 화용론적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 도출되므로 (8)-(10)은 명백하게 긴장 관계에 있다. 따라서 (10)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8)을 거부하거나 (9)를 거부해야 한다. (9)를 거부하는 것은, 톰슨에 따르면, (L1)에 의해서 불가능해지거나 (L2)에 의해서 (7)과 충돌한다. 반면에 (8)을 거부하는 것도 (7)과 충돌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7)을 받아들이는 한, (10)을 부정해야 한다.

필자는 이것이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톰슨의 논증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논증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비판의 핵심은, 톰슨의 생각과는 달리, (8)을 거부하는 것

이 (7)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자는 위에서 인용된 루이스의 사례가 이미 (8)을 거부하는 것이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루이스의 사례는 (8)을 거부하는 특정한 방식은 종종 (7)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루이스의 인과적 설명 이론에 따르면 설명 개념이 인과 개념을 통해서 분석되게 되며, 따라서 설명 개념이 인과 개념에 내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인과 개념이 설명 개념에 내용을 부여한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인과 개념이 설명 개념에 독립적이게 될 경우 설명 개념은 인과 개념에 어떤 내용도 부여해줄 수 없게 된다. 이 관계는 바로 형이상학적 설명과 근거 부여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루이스를 흉내 내어)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의 근거의 계열에 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하자. 아마도 우리는, 루이스의 과학적 설명에 대한 “인과적 설명 이론”에 대응하는, 형이상학적 설명에 관한 “근거 부여적 설명 이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루이스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객관적인 근거 부여 관계를 받아들이면서 형이상학적 설명이 화용론적 요소를 갖는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안전하게 (8)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근거 부여적 설명이론을 받아들일 경우 (7), 즉 설명 개념을 통해서 근거 개념에 내용을 주는 프로젝트는 가망이 없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반대로 근거 개념이 설명 개념에 내용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루이스의 사례는 매우 성공적으로 (1)-(3)이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원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톰슨의 원래 논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루이스의 이론은 재구성된 톰슨의 논증에서 (8)-(10)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8)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원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8)을 부정하면서 (7)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필자의 주장은 루이스의 사례를 원용해서 보여질 수는 없으며 다른 방식으

로 보여져야 한다.

필자는 이 대안적인 방식을 3절에서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이 대안적인 방식은 설명 이론이 갖는 일반적인 구조에 대한 필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므로 2절에서는 우선 필자의 이론을 소개할 것이다. 이 필자의 이론은 이미 다른 곳에서 자세하게 제시 및 정당화된 바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최대한 간략한 형태로 소개될 것이다.

2. 설명 이론의 구조⁷⁾

필자의 설명 이론의 구조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완전한 설명적 관계에 대한 분석은 최소한 다음의 네 개의 차원을 가져야 한다. (a)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 (b) 설명적 이해 또는 지식의 본질에 대한 개념, (c) 설명의 화용론적 차원에 대한 분석, (d) 설명의 인식론적 차원에 대한 분석. (이재호, 2012, 16쪽) 이 이론에 따르면,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는 적절한 화용론적 조건과 인식적 조건을 충족할 때 설명적 관계가 되며, 설명적 이해 또는 지식의 본질에 대한 개념은 어떤 이론이 제시하는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이 왜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이라고 불릴 자격을 갖는지에 대한 정당화를 제공해 준다. 필자가 설명 이론이 이런 다중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설명 이론을 이렇게 파악하지 않을 경우 어떤 설명 이론의 정체성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톰슨의 논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설명의 화용론적 특성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 설명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는 종종 “화용론적 설명 이론”이라던가 “설명적 실재론”이라는 표현을 듣는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식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

7) 이 절의 내용은 필자의 과거 논문(이재호, 2012)에 기반하고 있다.

건 설명적 관계의 분석에 화용론적 고려가 들어간다는 주장을 포함하는 이론을 화용론적 설명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런 식으로 화용론적 설명 이론을 정의하는 것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우리는 2008년 승례문 화재는 왜 발생했는지 물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누가 그것은 승례문 주변의 공기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면 그 대답은 전혀 만족스런 설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대답이 만족스런 설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당시 승례문 주변의 공기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화재의 부분적인 원인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이어서 설명적일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설명적 관계가 성립하려면 어떤 종류의 화용론적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설명의 이런 측면을 부정하는 이론은 진지하게 고려될 가치가 없다. 이는 적어도 진지한 고려의 가치가 있는 모든 설명 이론은 이런 의미에서의 “화용론적 설명 이론”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렇게 정의된 “화용론적 설명 이론”은 아무런 정보 가치가 없는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론에는 뭔가 대단히 불만스러운 것이 있다.

다음으로 “설명적 실재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설명적 실재론을 정의한다.

내가 설명적 실재론이라고 부르길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C는 c가 e에 어떤 확정된 객관적인 관계 R을 지닌다는 사실로 인하여 E에 대한 설명항이 된다.⁸⁾

이 정의에서 제시되는 설명적 실재론의 조건을 약하게 읽으면 설명항

8) 여기서 C는 설명항이며 c는 설명항이 기술하는 설명항 사건이다. 마찬가지로 E는 피설명항이며 e는 피설명항 사건이다. (J. Kim, 1987, 229쪽)

사건과 피설명항 사건 사이에 어떤 객관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설명적 관계의 성립의 필요조건이 될 경우 설명적 실재론이 된다는 것이 될 터인데, 이 조건은 너무 약한 조건이다. 왜냐하면 c 와 e 가 동일성 관계를 갖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객관적인 조건일 것인데, 설명의 비재귀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여므로, 이런 약한 객관적 관계의 성립이 설명적 관계의 성립에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부정할 이론은 아마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⁹⁾ 따라서 이렇게 약하게 이해될 경우 모든 고려할 가치가 있는 설명 이론은 설명적 실재론이 되어서 “설명적 실재론”은 아무런 정보 가치가 없는 이름이 된다. 반대로 이 조건을 강하게 읽으면 설명항과 피설명항 사이의 관계가 완전하게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설명적 실재론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인데, 이는 너무 강한 조건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설명적 관계의 분석에는 반드시 어떤 화용론적 고려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이렇게 강하게 정의된 “설명적 실재론”은 모든 고려할 가치가 있는 설명 이론을 설명적 비실재론으로 만들어 마찬가지로 아무런 정보 가치가 없는 이름이 된다.

그러나 필자의 이론을 도입할 경우 “화용론적 설명 이론”이나 “설명적 실재론”은 사소한 이름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앞서 살펴 보았던 루이스의 인과적 설명 이론을 생각해 보자. 필자의 이론에 따르면, 이 이론에서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은 루이스의 인과에 대한 반사실적 분석이 제공한다. 이 분석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c 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e 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오직 그 경우에 C 와 E 사이에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성립한다. 이제 우리는 왜 반사실적 의

9) 한 익명의 심사자는 과거 서양 철학에서 자기 원인성 개념이 진지하게 논의된 바 있으므로 설명의 비재귀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특히 서양 중세에, 자기 원인성 개념이 진지하게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현대 분석 철학적 논의에서 명시적으로 자기 원인성 또는 자기 설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하다.

존성 관계를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로 봐야 하는지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설명 이론의 두 번째 차원, 즉 설명적 이해 또는 지식의 본질에 대한 개념이 제공한다. 루이스에 따르면 설명적 지식의 본질은 인과적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의 이론 따르면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에 있는 사건들에 대한 정보가 인과적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는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만 성립하면 설명적 관계는 자동적으로 성립하는가? 아니다. 위의 승례문 화재 사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당시 승례문 주변의 공기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승례문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명백히 참이며, 따라서 산소의 존재와 화재의 발생 사이에는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 보았던 화용론적 차원의 고려 때문에 실제적인 설명적 관계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필자의 이론에 따르면,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있는 두 사건은 적절한 화용론적 조건과 인식적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 설명적 관계를 갖게 된다. 설명항과 피설명항 사이에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은 설명적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된 루이스의 설명 이론은 화용론적 설명 이론인지 물을 수 있다. 필자의 이론에 따르면 설명 이론의 정체성은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과 설명적 이해 또는 지식의 본질에 대한 개념에 의해서 결정되며 화용론적 차원과 인식적 차원은 설명 이론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않는다. 우리가 루이스의 설명 이론을 “인과적 설명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이론이 제시하는 설명적 지식의 본질에 대한 개념이 인과 개념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루이스의 설명이론을 “화용론적 설명 이론”으로 부를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그의 이론에 화용론적 차원이 포함된다는 것은 무관하다.¹⁰⁾ 그의 이

론이 화용론적 이론인지 아닌지는 그가 제시하는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 즉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에 화용론적 고려가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루이스의 이론이 사소하지 않은 의미에서 화용론적 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반사실적 의존성 관계의 성립에 화용론적 고려가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¹¹⁾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필자는 톰슨의 원래 논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루이스의 원래 이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인과 관계 개념과 결합된 루이스의 설명 이론을 예로 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설명적 실재론”도 사소하게 참이거나 사소하게 거짓이 아닌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설명 이론이 제시하는 잠재적 설명적 관계에 대한 모델에 따를 경우 잠재적 설명적 관계가 객관적일 경우 우리는 그 이론을 설명적 실재론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반대로 그 모델에 따를 경우 잠재적 설명적 관계에 마음 의존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설명적 비실재론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적 실재론”을 이해할 경우 우리는 애초에 톰슨이 긴장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제시했던 (1)-(3)이 왜 사실은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를 보다 원리

10) 이는 루이스의 생각과도 일관적이다. 루이스는 앞서 언급된 바 있는 화용론적 고려점을 포함한 다양한 화용론적 고려 사항을 나열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명단은 철학자들이 설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한 많은 것들을, 그리고 설명이라는 이름을 받을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것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특별히 설명에 대해서 말한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한 것은 임의의 크고 복잡한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은 피셜명항 사건의 인과적 역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멜버른의 철도와 트램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이야기될 수 있다. ... 설명의 화용론과 같은 어떤 특별한 주제는 없다.”(Lewis, 1986, 227-228쪽) 여기서 루이스는 설명적 관계에 화용론적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소는 설명 이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 예를 들어, 어떤 맥락에서는 “시지가 한국전의 사령관이었다면 그는 원자폭탄을 사용했을 것이다”가 참이고 다른 맥락에서는 “시지가 한국전의 사령관이었다면 그는 투석기를 사용했을 것이다”가 참이게 된다.

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객관적 인과 이론과 결합된) 루이스의 인과적 설명 이론에서 인과의 객관성과 인과적 설명의 화용론적 특징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론이 객관적인 인과 관계를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로 보는 설명적 실재론이기 때문이다. 루이스의 설명 이론이 받아들이는 화용론적 요소는 그 이론의 화용론적 차원에 머무르며, (객관적 인과 이론과 결합된) 루이스의 설명 이론의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침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객관적인 근거 부여 관계와 화용론적 요소가 있는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형이상학적 설명 이론이 제시하는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객관적인 근거 부여 관계를 포함한다면, 공존할 수 있다.

3. 톰슨에 저항하기

이 절에서 필자는 베넷의 만들기(building) 관계에 대한 이론을 원용해서 설명 개념을 통해서 객관적인 근거 부여 관계에 내용을 부여할 수 없다는 톰슨의 주장에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우선 베넷의 만들기 관계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이 베넷의 표현에 따르면 “형이상학적 설명”에 대한 이론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후, 베넷의 “형이상학적 설명”에 대한 이론이 어떤 의미에서 필자의 용어범으로서는 형이상학적 설명의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이를 통해서 톰슨의 주장의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베넷은 기존에 다소간 독립적으로 연구되었던 다양한 의존 관계들을 통칭해 ‘만들기(building)’ 관계라고 부른다. 이 범주에는 대표적으로 합성(composition), 구성(constitution), 집합 형성(set formation), 실현(realization), 미세기초 결정(microbased determination), 근거 부여

(grounding) 관계가 포함되며, 이미 설명된 이유에서 수반은 제외된다. (Bennett, 2017 Sec. 2.1) 베넷은 근거 부여 관계를 좁은 의미로 이해할 경우 그것은 사실(fact)들 사이의 관계가 되며, 따라서 위에 나열된 다른 관계들과 구분되는 만들기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컨대, 합성 관계는 대상(object)들 사이의 (다대일) 관계이므로 사실들 사이의 관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베넷은, 그러나, 근거 부여 관계를 아주 폭넓게 이해한다면 모든 만들기 관계를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베넷에 따르면 이상의 만들기 관계들은 그것의 성립을 위해 다음의 필요 충분조건을 갖는다. (Bennett, 2017, 32쪽)

- 방향성(directedness): 반대칭적이고 비재귀적임.
- 필연화(necessitating): 만드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필연화함.
- 생성성(generative): 만드는 것이 만들어 지는 것을 생성 또는 산출함.

이 세 개의 조건이 만들기 관계의 성립에 충분한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베넷은 (근거 부여에 관한 논의를 포함해) 만들기 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철학적 논의에서 등장하는 설명적 관계의 성립을 제4의 조건으로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의 결론은 설명성 조건을 만들기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데, 그 논증의 핵심에는 설명이라는 개념이 애매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있다. 그는 설명에는 순수하게 형이상학적 의미(설명M)와 인식적 의미(설명E)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설명M한다는 것은 후자가 전적으로 전자의 까닭에 발생했다는 것, 즉 전자가 후자를 존재하거나 성립, 발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 하나가 다른 것을 설명E한다는 것은 전자가 후자를 이해 가능하게(intelligible) 만든다는 것, 즉 그것이 어떻게 또

는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빛을 준다거나 또는 아마도 이런 질문의 연쇄를 단절시킨다는 것이다.(Bennett, 2017, 61쪽)

베넷은 설명의 형이상학적 의미와 인식적 의미를 구분한 후, 다음의 딜레마 논증을 통해서 설명성이 제4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우리가 설명 조건으로 형이상학적 설명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이미 포함된 3개의 조건에 어떤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형이상학적 설명 개념은 필연성 조건과 발생성 조건을 통해서 이미 기존의 조건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설명 조건으로 인식적 설명을 의미한다면 “설명E는 우리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이미 알고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분명 문맥 민감성을 가지며, 이것은 또한 협조성 등에 관한 그라이스적인 고려들을 포함한다.”(Bennett, 2017, 61-62쪽) 만들기 관계는 객관적인 관계라고 생각되므로 이렇게 생각된 인식적 설명 개념은 만들기 관계의 조건이 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만을 본다면 베넷의 논의는 톰슨의 주장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용되기 보다는 톰슨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용되기 쉬워 보인다. 적어도 톰슨이 강조하는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성공적인) 설명에는 인식적 요소가 분명히 들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설명의 인식적 차원을 설명한다.

설명하기는 인식적 행위이며, 설명을 갖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적 성취이다... 만약 우리가 지식과 알려지는 실재라는 전통적인 구분을 통해서 생각한다면 설명은 지식의 측면에 있다... 지식은 참을 함축한다. ... 지식에 대한 실재론적인 견해에 따르면, 모든 지식은 객관적인 상대자, 즉 알려지는 것을 갖는다. ... 설명적인 지식은 정확히 어디에 존재하는가?¹²⁾

12) (J. Kim, 1987, 228쪽) 쪽수는 다음의 선집에 들어 있는 위의 논문의 것을 따름. (Ruben, 1993)

일상적 설명 개념이 설명적 지식의 획득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적 차원을 포함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 베넷이 지적하듯이, 그런 일상적 설명 개념에 화용론적, 또는 행위자 상대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베넷의 인식적 설명 개념에 대한 생각은 톰슨의 일상적인 설명의 한 형태로서 생각된 형이상학적 설명 개념에 대한 생각과 사실상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베넷의 만들기 관계에 대한 이론은 톰슨에 저항하려는 필자의 목표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그 출발점은 그가 자신의 형이상학적 설명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다. 베넷은 형이상학적 설명 개념이 사실상 자신의 만들기 개념과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베넷은 이 사실을 설명 개념이 만들기 관계의 이론에 추가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강조한다. 그러나 필자는, 베넷의 원래 의도와는 별개로, 이 사실을 우리가 베넷의 만들기 관계에 대한 이론을 형이상학적 설명적 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받아들인다면, 베넷의 위의 주장은 만들기 관계로 이해된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는 인식적 설명 관계와 다른 것이며, 인식적 설명 관계는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의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된 베넷의 이론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톰슨의 주장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다. 톰슨이 L1과 L2를 통해서 제시했던 딜레마 논증을 기억해 보자. 그는 만약 형이상학적 설명이 일상적 설명의 한 종류라면 화용론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일상적 설명과 별개의 설명이라면 그런 설명 개념은 근거 부여에 내용을 부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설명 개념은 일상적 설명 개념 뿐이기 때문이다. 일견 베넷의 형이상학적 설명과 인식적 설명의 구분은 톰슨의 특수한 설명과 일상적 설명의 구분과 유사해 보인다. 베넷과 톰슨이 정말로 갈라지는 지점은 형이상학적 설명과 인식적 설명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다. 톰슨의 딜레마 논증에서 형이상학적 설명은 일상적인 설명의 한 종류이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설명과

는 동떨어진 별개의 설명이다. 그러나 베넷은 이런 톰슨의 이분법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대안적인 관계 설정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는 “나는 분명 만들기 관계들이 자체로는 설명_E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기껏해야 설명_E를 뒷받침(back) 한다.”(Bennett, 2017, 61쪽) 비록 베넷이 “기껏해야”라는 평가 절하적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만약 설명_M관계가 설명_E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면 이들 사이의 관계는 하나가 다른 하나의 한 종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별개의 것이 되는 관계도 아니게 된다. 즉, 이 둘의 관계는 톰슨의 딜레마 논증이 전제하고 있는 이분법의 양 끝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가 된다.

이제 우리는 베넷이, 아마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말한 “뒷받침”하는 관계를 필자의 설명 이론의 구조에 대한 이론과 연결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선, 베넷의 만들기 관계에 대한 이론, 즉 베넷의 형이상학적 설명에 관한 이론은 사실은 형이상학적 설명적 관계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형이상학적 설명의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가져야 할 조건을 기술해 주는 이론이다. 다음으로, 베넷의 인식적 설명에 관한 이론은 **일상적 설명의 한 종류로서의** 형이상학적 설명적 관계에 대한 이론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형이상학적 설명이 인식적 설명을 “뒷받침한다”는 것은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성립이 설명적 관계의 성립에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는 (필자의) 주장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필자의 이론에서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는 (일상적) 설명적 관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차원이며 따라서 후자의 한 종류가 아니게 된다. 동시에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는 (일상적) 설명적 관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무관한 별개의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인과적 설명 이론에서 잠재적 설명적 관계로서의 인과 관계의 객관성이 인과적 설명 관계의 화용론적 성격과 완벽히 양립 가능하듯이, 형이상학적 설명 이론에서 잠재적 설명적 관계로서의 근거 부여 관계의 객관성은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의 화용론

적 성격과 완벽히 양립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형이상학적 설명에 있어서의 잠재적 설명적 관계가 가져야 할 조건으로 이해된 베넷의 만들기 관계 이론은 앞서 언급 되었던 “근거 부여적 설명 이론”이 갖는 ((7)과 충돌하는) 문제를 갖지 않는다. 근거 부여적 설명 이론에 따르면 근거 개념이 설명 개념에 내용을 주기 때문에 설명 개념이 근거 개념에 내용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베넷의 만들기 관계 이론은 만들기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설명 개념에 호소하지 않고 기술해 주기 때문에 순환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상에서 제시된 필자의 논증에 비추어 보면 톰슨의 논증이 갖는 문제는 분명하다. 톰슨은 궁극적으로 설명과 근거 부여 사이의 가능한 관계를 다음의 세가지로 제한해 고려한다.

- 설명과 근거 부여의 밀접한 관계를 부정하는 이론
- 설명과 근거 부여의 관계를 매우 약하게 설정하는 이론
- 설명과 근거 부여의 관계를 지나치게 밀접하게 설정하는 이론

그는 설명과 근거 부여의 밀접한 관계를 부정하는 이론은 설명을 통해 근거 부여에 내용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무산시킨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주장에 동의한다. 다음으로 그는 설명과 근거 부여의 관계를 매우 약하게 설정하는 이론의 경우 설명과 근거 부여 사이에 인식적 갭이 발생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형이상학적 설명이 단순하게 근거 부여 관계를 추적(track)하기만 한다면 근거 부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설명의 특징들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근거 부여에 관한 우리의 판단에는 우리가 수용 가능하다고 간주해야 하는 것보다 더 큰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Thompson, 2016, 399쪽)

마지막으로 설명과 근거 부여의 관계를 아주 (지나치게) 밀접하게 설정할 경우 톰슨은 설명 관계의 화용론적 성격이 근거 부여관계의 화용론적 성격으로 바로 전이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 지점에서 톰슨은 아주 밀접한 관계로 근거 지움 관계의 성립이 설명적 관계의 성립을 필연화하는 관계, 즉 근거 지움 관계의 성립이 설명적 관계의 성립에 충분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 (Thompson, 2016, 399-400쪽) 문제는 설명 이론의 구조에 대한 필자의 이론에 따르면, 이 세 개의 관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제 4의 관계로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와 설명적 관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제 4의 관계는 자명하게 이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잠재적 설명적 관계의 존재는 설명적 관계의 존재를 필연화하지 않는다. 동시에 잠재적 설명적 관계의 성립은 설명적 관계의 성립을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설명적 관계의 성립은 잠재적 설명적 관계의 성립을 보장해 준다. 더 나아가 잠재적 설명적 관계는 설명적 관계의 하나의 차원이기 때문에 설명적 관계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는 잠재적 설명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실은 설명의 성립에 대한 지식과 근거 부여 관계의 성립에 대한 지식 사이에 인식적 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제4의 관계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근거 부여 관계에 내용을 부여해 주는가? 필자는 이 과정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한다.

- (11) 형이상학적 설명의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방향성, 필연성, 산출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재해석된 베넷의 이론)
- (12) 어떤 사실들 사이에 설명이 필요한 규칙성이 발생한다. (우연적인 사실)
- (13) 이 규칙성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다음의 이유 등으로 인해, 이 사실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가 실제로 성

립한다는 것이다.

- A. 이 규칙성이 (예컨대 동시성 등의 특징 때문에) 인과 관계의 결과로 생각될 수 없고
 - B. 이 규칙성이 발생할 때 우리의 설명적 직관도 작동하며
 - C. 쌍조건문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C-섬유 활성화 사건의 발생과 고통 사건의 발생)와 성립하는 경우(예컨대, 소크라테스의 존재와 소크라테스의 단집합의 존재)를 통일적으로 다루는 것이 선호된다
- (14) 따라서 이 사실들 사이에 형이상학적 설명적 관계가 성립한다.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
- (15)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의 존재는 형이상학적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의 존재를 보장한다. (필자의 이론)
- (16) 따라서 사실들 사이에 성립하는 방향성, 필연성, 산출성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비인과적인 객관적 관계가 존재한다. ((11), (14), 그리고 (15)로부터)
- (17) 속성 실현, 집합 형성, 구성 등등은 사실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우리는 사실들 사이에서 성립하고 공식적으로(비인과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방향성, 필연성, 산출성을 갖는 어떤 잠재적 설명적 관계를 상정해야 한다.
- (18) 이런 이론적 역할을 수행하는 잠재적 설명적 관계를 근거 부여 관계라고 부르자.

(11)-(18)의 추론은 일종의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며 이 추론의 결과는 근거 부여라는 객관적 관계가 사실 사이의 비인과적 설명이라는 이론적 역할의 수행자로서 상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설명 개념은 근거 부여 관계의 이론적 역할을 (설명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규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근거 부여 관계 개념에 내용을 부여해 준다.¹³⁾

13)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필자는 베네티의 이론을 원용한 이 해결책이 우리가 받아 들여야 하는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필자에게 있어서 베네티의 이론은 설명 개념을 통해서 근거 부여 개념에 내용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레시피의 역할을 할 뿐이다. 우리가 방향성, 필연성, 생성성을 잠재적 형이상학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가 충족해야 할 조건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는, 적어도 필자에게는, 열

너무 강하지도 동시에 너무 약하지도 않은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와 설명적 관계 사이의 관계로서의) 제4의 관계를 통한 필자의 해결책이 갖는 몇몇 특징을 요약해 보자. 우선, 이 해결책은 화용론적 요소를 갖는 형이상학적 설명 개념과 객관적인 근거 부여 개념의 공존을 가능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이 해결책은 (톰슨의 용어법으로는) 일상적인, 또는 (베넷의 용어법으로는) 인식적인 설명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필자의 해결책에서 “형이상학적 설명”은 화용론적 차원과 인식적 차원, 그리고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을 모두 포함하는 일상적인 설명 개념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설명 개념만이 어떤 내용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톰슨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다음으로 필자의 해결책은 화용론적 요소를 갖는 일상적인 설명 개념과 근거 부여 개념을 동일시하지 않지만 동시에 이들 사이에 인식적 갭을 허용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일상적인 설명 개념의 화용론적 요소가 근거 부여 관계에 전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동시에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에서) 일상적인 설명 관계의 발생이 근거 부여 관계의 발생을 보장해서 톰슨이 우려하는 인식적 갭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해결책은 근거 부여가 수행하는 설명적 역할의 내용을 기술하는 과정에 근거 부여 개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 부여적 설명 이론”이 갖는 순환성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4. 필자의 해결책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인가?

이 마지막 절에서 필자는 앞 절에서 제시한 필자의 이론이 근거 부여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전혀 나타난 적이 없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기존의 문헌에서 암묵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다 정식화해

린 문제이다.

서 제시한 것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우선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필자의 아이디어는 베넷의 이론에 이미 매우 원초적인 형태로 들어 있다. 베넷은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그의 형이상학적 설명 개념과 인식적 설명 개념이 동떨어진 별개의 개념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전자가 후자를 “뒷받침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필자는 필자의 이론이 이 모호한 “뒷받침한다”라는 표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식화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이론은 베넷의 이론에서보다 P. 아우디의 이론에서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 원형이 나타난다. 아우디는 설명 개념을 통해서 근거 부여 개념에 내용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하는 대표적인 철학자인데, 설명 개념과 근거 부여 개념이 너무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경우 자신의 시도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델리의 비판을 인용하며 고려한다.

이제 근거 부여와 보다 친숙한 개념, 즉 설명 개념 사이의 ... 연결을 고려해 보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안전하게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x는 x가 y에 근거를 부여할 경우에 한해 y를 (최소한 부분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한다.

이 연결이 근거 부여를 해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델리는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단 하나의 개념만을 갖고 있다고, 즉 이 연결은 단순한 이름 바꿔 붙이기(relabeling)에 불과하며 따라서 근거 부여에 어떤 빛을 주는데 실패한다고 우려한다. (Audi, 2012, 119쪽)

만약 우리가 근거 부여를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로 약정(stipulate)한다면 근거 부여 관계가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와 동일한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이 인용문에 등장하는 델리의 우려는 적절한 우려가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 형이상학적 설명의 화용론적 특징이 근거 부여 관계로 전이될 것이라는 톰슨의 우려도 적절한 것이 된다. 그러나 아우디는 형이상학적

설명과 근거 부여 사이에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나의 이해는 설명이 근거 부여와는 다를 것을 요구하며 실제로 이들이 다르다고 생각할 강력한 이유들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도 불구하고, 결정 관계가 두 개의 사실들 사이에 성립한다는 것은 이 사실들 사이에 설명적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할 수 있다. 충분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는 (화용론적 또는 인식적 요소들과 같은) 그 이상의 것들이 요구될 수 있다. (Audi, 2012, 119-120쪽)

아우디는 근거 부여 관계의 성립이 설명적 관계의 성립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닌) 단순한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그럴 가능성만을 언급하며,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떤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우디가 고려하는 그 가능성은 필자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 베넷의 이론과 합쳐진 필자의 이론에 따르면 (근거 부여를 포함하는) 비대칭성, 필연화, 그리고 발생성 조건을 충족하는 어떤 관계의 성립은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의 성립에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에 불과하며, 설명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화용론적 조건과 인식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아우디는 설명 개념이 근거 부여 개념에 의존하지 않아야 후자에 적절하게 내용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이 논문에서 필자가 베넷의 이론을 원용해 제시하는 “레시파”는 근거 부여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 개념을 제시하고 이 개념이 제공하는 이론적 역할의 수행자로서 근거 부여 관계를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아우디보다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설명이 근거에 내용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자. 우리는 설명 개념은 그것이

갖는 화용론적 특성 때문에 근거 부여 관계에 내용을 부여할 수 없다는 톰슨의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일상적인 형이상학적 설명 개념의 한 차원을 이루는 잠재적 설명적 유관성 관계에 대한 모델에 근거 부여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객관적인 내용을 부여할 수 있기만 하다면, 즉 “근거 부여적 설명 이론”이 아닌 형태의 어떤 실재론적 설명 이론을 형이상학적 설명에 대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의 화용론적 특성을 받아들이면서도 객관적인 근거 부여 관계에 설명 개념을 통해서 내용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해진다. 그리고 베넷의 사례는 이런 프로젝트가 실제로 유의미하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참고문헌

- 이재호. (2012). 「설명적 관계의 다중구조와 설명이론의 정체성」 *과학철학*, 15(2), 1-24.
- 이재호. (2020). 「햄펠, 설명, 김재권」 *과학철학*, 23(3). (2020년 11월 출판 예정)
- Armstrong, D. M. (1983). *What is a law of nature?* Cambridge [Cambridgeshir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udi, P. (2012). “A clarification and defense of the notion of grounding” In F. Correia & B. Schnieder (Eds.), *Metaphysical Grounding-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Reality* (101-121쪽): Cambridge.
- Bennett, K. (2017). *Making Things Up*: Oxford.
- Bird, A. (2007). *Nature's Metaphysics: Laws and Properties*: Oxford University Press.
- Correia, F. (2013). “Metaphysical Grounds and Essence” In H. e. al. (Ed.), *Varieties of Dependence: Ontological Dependence, Grounding, Supervenience, Respons-Dependence* (271-296쪽): Muenchen: Philosophia.
- Corry, R. (2019). *Power and Influence: The Metaphysics of Reductive Explanation*: Oxford.
- Fine, K. (2001). “The Question of Realism” *Philosophers' Imprint*, 1(1), 1-30.
- Kim, J. (1987). “Explanatory Realism, Causal Realism, and Explanatory Exclusio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12, 225-239.
- Kim, J. (1998). “The Mind-Body Problem After Fifty Years” In A. O'Hear (Ed.), *Current Issues in Philosophy of Mind* (3-21쪽): Cambridge.
- Lewis, D. (1983). “New Work for a Theory of Universal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61(4), 343-377.

- Lewis, D. (1986). "Causal Explanation" In *Philosophical Papers* (Vol. II, 214-240쪽).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uben, D.-H. (1993). *Explanation*.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hompson, N. (2016). "Grounding and Metaphysical Explanation"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116(3), 395-402.
- Williams, N. E. (2019). *The Powers Metaphysic*: Oxford.

How can the notion of explanation shed lights on the notion of ground?

Lee, Jaeho (Chung–ang Univ.)

The notion of grounding has recently received a lot of philosophical attention in analytic metaphysics. Many philosophers who defend this notion have appealed to the notion of metaphysical explanation to explicate this somewhat mysterious notion. In this paper, I examine N. Thompson's critique of this effort. I will argue that her criticism is based on a misunderstanding of the status of pragmatic dimension of explanatory relation. According to my theory of the structure of explanatory relation, the pragmatic nature of explanation is perfectly compatible with the objectivity of grounding.

Key words: Explanation, Ground, Causation, Explanatory Realism

이재호 E-mail : sycamore@cau.ac.kr

투 고 일	2020년 8월 19일
심 사 일	2020년 10월 14일
게재확정	2020년 11월 17일